

<2022년 1월 16일 주일말씀>

기뻐 뛰어라

[시대 성경]

깨닫고서 기뻐 뛰어라.

그래야 힘들지 않게 모든 사명을 하며 살아가게 되리라.

기뻐하며 부지런히 뛰어야 더 얻고 힘나서 행하여,
매일 세상을 이기면서 살게 되리라.

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느냐.
사랑하는 하늘 신부가 되었기 때문이니라.

주는 말씀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도 주를 따라 말씀이 생활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것이 주를 좇는 삶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

16 항상 기뻐하라.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 선생님은 주일말씀을 받기 위해
새벽 12시 40분에 교회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령님께 묻기를,
“주일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줘야 될까요?” 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네 삶 그대로 전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 그때 선생님의 모습을 보니,
기도하러 기뻐 뛰어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기뻐 뛰어라.”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왜 기뻐 뛰고 있는지 보니,
〈하나님이 보낸 자〉가 되었기에 ‘할 일’을 하며 기뻐 뛰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시대 신부〉가 되어 사니,
기뻐 뛰며 살아야 된다고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 〈시대 신부〉가 되었음을 깨닫고 기뻐 뛰어야,
저마다 ‘맡은 사명’을 하며 힘들어하지 않고,
매일 지겹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쁘지 않고, 힘들어 하면서는
매일 새벽부터 뛰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 새벽부터 기뻐 뛰며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시대 구원〉을 받고 〈휴거〉되어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신부〉가 되어 살아가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두 개성대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이를 귀하게 깨달아야, 매일 기쁨 뛰며
〈삶의 프로그램〉을 줄이지 않고 더하며 살게 됩니다.

- 삶이 기쁘지 않으면,
저마다 ‘하는 일’을 줄이고 살게 됩니다.

〈깨닫고 기뻐하며 뛰는 자〉는
한 가지라도 더 행하면서 바쁘게 살아가게 됩니다.

- 〈성령과 주〉와 함께 살면, 기뻐하게 됩니다.
- 〈성령과 주를 실체로 모시고 사는 시대〉를 만나서 같이 살아도,
‘기뻐할 줄 모르는 자’는 ‘기쁨을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성령님〉을 빼고, 〈주〉를 빼고 살면,
‘새벽부터 뛰면서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 〈기뻐할 것〉을 깨달아야, ‘기쁨’입니다.
-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큰 축복’입니다.

‘어떤 일로 인해 기쁨이 오는가.’ ,
‘어떤 일로 기뻐하게 되는가.’ 가 중합니다.

- <기쁨을 잃고 뛰는 자>는 ‘삶’ 이 고달프고 힘듭니다.
얼굴이 울상이 되어 ‘밤’ 같이 어두워집니다.

<기뻐서 뛰는 자>는 ‘신랑’ 을 만나고,
‘성령님과 주’ 를 만난 자같이 얼굴이 ‘해’ 같이 빛납니다.

- 깨달으면, ‘웃는 얼굴’ 을 보이며 기쁘게 살아갑니다.

깨닫지 못하면, 인상을 쓰고 ‘어두운 얼굴’ 로
‘기쁨이 사라진 삶’ 을 살아갑니다.

- <기뻐 뛰는 자의 얼굴>은
바라던 것을 얻어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기쁨의 얼굴’ 입니다.

- <사망에서 살던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님>도, <주>도 없이 ‘세상 사랑의 삶’ 을 살면서,
‘허무한 세계의 삶’ 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사랑의 삶>은
‘삼위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체’ 가 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 <예전>과 <지금>을 비교해서 보며, 깨닫고 기뻐해야 됩니다.

-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살아가니, 기뻐 뛰어야 됨을 깨닫고 기뻐해야 됩니다.

- 기뻐해야, 늙지 않고 건강하게 됩니다.

- <세상의 기쁨을 얻고 사는 자들>은
‘의무상’ 으로 웃으며 살아갑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을 깨닫고,
그 신부가 되어 사랑을 받으며 휴거되어 살아가는 자들>은
‘기쁨의 근본’ 을 깨닫고 기뻐 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살아도,
‘기쁨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 라야, 기뻐 뛰며 살게 됩니다.

- 모두 <하나님께 받고 얻은 것>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새벽부터 기도하고, 기뻐 뛰며 살아가야 됩니다.
- <기뻐 뛰는 삶을 쫓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자들>은
삶이 힘들고 무거워서 ‘하던 일’ 을 한 가지씩 덜 하며 살아가다가,
후에는 다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 <지옥으로 가던 자의 삶>을 면하고,
구원받고 휴거되어 <하나님과 성령님의 신부>가 되어 사는데,
그 삶이 얼마나 기쁜지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신부의 사명>을 빼앗아 가 버립니다.

- 깨닫지 못하면,
마치 농부가 <돌밭>에 씨를 뿌린 것 같아서 싹이 나지 않습니다.
이는 사탄이 빼앗아 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 <주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옥토 밭에 씨를 뿌린 자’와 같아서
수백 배 결실하여 얻게 됩니다.
- 깨달으면, 꼭 쥐고 살게 됩니다.

선생님은 어떤 것을 받으면 성령님께 드리고,
안 뺏기려고 늘 기도하고 살됩니다.

늘 <내 것>과 <섭리사의 것>을 뺏기지 않도록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 깨닫지 못하면,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운동>도, <전도하는 것>도, <관리하는 것>도,
<외치고 증거하는 것>도, <작품 보물들>도, <사명들>도,
<사랑>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행하지 않게 되고,
결국 뺏기게 되어 ‘기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서 깨닫고, 기뻐 뛰며 행해야 됩니다.

- 때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

제때 행하지 못하면 ‘기회’를 영영 놓치고 맙니다.

슬피 울고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됩니다.

- <하늘이 주신 기쁨>을 깨닫지 못하고 살면, 기쁘지 않으니
<자기 삶의 프로그램>을 10에서 9개로 줄여 행하고,
그래도 기쁘지 않으니 8개로 줄여 행하고,
점점 <행할 것>을 행하지 않다가 무의미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삶의 부도가 난 자’가 됩니다.

- 기쁨수록 <자기 삶의 프로그램>을
자꾸 늘리고, 더 많이 행해야 됩니다.
- 선생님은 성령님께 <행할 것>을 더 많이 달라고 기도하며,
더 바쁘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에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어떤 한 가지 일>을 지목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깨닫고 기뻐하며 살게 해 준다.

그러면, 기뻐서 자기 스스로
<삶의 프로그램>을 늘리면서 살게 된다.” 하셨습니다.

-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깨닫게 해 주시니,
정말 기뻐서 선생님도 모르게 더 행하게 되고,

바쁘게도 ‘할 일’ 을 더 늘리게 됐습니다.

- 기쁘면, 더 많이 뛰게 되고,
기쁘지 않으면, 덜 뛰게 됩니다.
- 기뻐하며 뛰어야,
뛰는 만큼 얻게 되고, 보람을 느끼고 살게 됩니다.

얻으려면, ‘기쁨’ 을 가지고 더 뛰고 달려야 됩니다.

- 기쁘게 뛰려면,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뛰어야 됩니다.

-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으로 가던 자들이 〈생명길〉로 가게 됐고,

〈전능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삼위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 외에 ‘더 큰 기쁨 거리’ 가 없습니다.

〈기쁨의 삶〉을 주셨으니,
깨닫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뛰며 살아야 됩니다.

- 기쁘지 않고서는
1년 12달을 뛰고 달리지 못합니다.

기쁘니까, 새벽부터 밤이 늦도록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뛰고 달립니다.

- 오늘은 <시대 신부>가 되어 사니 기뻐하고,
<각자 맡은 사명>을 깨닫고 기뻐하며 뛰라고 말씀했습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은 <기쁘게 뛰고 달리는 자>에게
‘원하는 것’도 다 주시고, ‘원하는 삶’도 모두 이루어 주십니다.
-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저마다 <기뻐하며 살 것>이 무엇인지 절실하게 깨닫고,
‘좋아하고 기뻐하며 뛰고 달리는 인생’을 살기를 축원합니다.